

고불문

한 자루의 향을 사르고, 삼가 부처님 전에 고합니다.

당신께서는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.

“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. 하나는 욕망의 길이고, 하나는 혐오의 길이다. 고통의 나락으로 이끄는 이 두 갈래 길을 떠나 그 가운데 길을 걸어라. 이 길을 걸으면 눈이 밝아지고, 지혜가 늘어나고,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,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며, 모든 고통이 소멸할 것이다.”

저희들은 이제 당신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. 부처님,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, 당신의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. 당신이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, 저희도 이제 위례신도시의 황량한 뜨락으로 찾아왔습니다. 저희에겐 이곳이 붓다 가야가 될 것입니다.

부처님, 당신이 품이 넓고 그늘이 풍성한 나무 한 그루로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삼으셨듯이 저희도 이제 널찍한 천막 한 채로 깃들 자리를 삼았습니다. 저희에겐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. 서릿발 같은 기상에 달을 벗 삼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는 수행처에 상월선원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.

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던 날, 저희라고 어찌 당신의 가르침에 생명을 바치겠노라 맹세하지 않았겠습니까. 고작 한 그릇이면 족할 음식에 흔들리고, 고작 한 벌이면 족할 옷에서 감촉을 탐하고, 고작 한 평이면 족한 잠자리에서 편안함을 구한 탓에 초발심이 흐려졌다 생각하니,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청규를 정하였습니다.

첫째,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.

둘째,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.

셋째,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.

넷째,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.

다섯째,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,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.

여섯째, 묵언한다.

일급제, “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.”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.

그리고 당신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면서 맹세하셨듯이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.

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.

가족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.

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

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.

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, 이곳이 한국의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.

비구 자승, 무연, 성곡, 진각, 호산, 심우, 재현, 도림, 인산 삼가 올립니다.